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미국, 캐나다
2. 여행목적
  - 자유민주주의 발달 국가의 선진 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 행정사례 연구
  - 각국의 도시환경, 공원 및 사회기반시설 견학 등을 통한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어린이집 방문을 통한 아동복지 연구 방향과 우수 정책 자료 수집
3. 여행기간 : 2015.04.01(수) ~ 04.10(금) <9박 10일>
4. 보고서 작성자 : 구의회 사무국 행정8급 손광혁
5. 여행자 인적사항
  - 단 장 : 강서구의회 의장 이연구
  - 부단장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 단 원 : 8명 (곽판구, 김병진, 장상기, 탁수명, 이의걸, 정정희, 강미영, 김성진 의원)
  - 수행공무원 : 5명(사무국장 정영숙, 의정팀장 오종열, 정연오, 조시준, 손광혁)

# 목 차

I. 연수일정	1
1. 연수 세부일정	1
2. 여행 노선도	3
II. 방문국 개요	4
1. 미 국	4
① 일반현황	4
② 정    치	5
③ 경    제	6
④ 문    화	7
⑤ 교    육	8
⑥ 도    시	8
⑦ 종    교	11
⑧ 우리나라와의 관계	11
2. 캐나다	15
① 일반현황	15
② 정    치	16
③ 경    제	16
④ 사    회	18
⑤ 문    화	19
⑥ 종    교	19
⑧ 우리나라와의 관계	19

Ⅲ. 주요방문지 ..... 20

1. 그라운드 제로 (뉴욕) .....	20
2. 월스트리트 (뉴욕) .....	20
3. 뉴욕 차이나타운 (뉴욕) .....	21
4. 자유의 여신상 (뉴욕) .....	22
5.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워싱턴) .....	23
6. 항공 우주 박물관 (워싱턴) .....	24
7. 백악관 (워싱턴) .....	24
8.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 .....	25
9. 링컨기념관 (워싱턴) .....	26
10.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워싱턴) .....	26
11.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	27
12.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캐나다) .....	28
13. 토론토 구시청사 (토론토) .....	28
14. 토론토 신시청사 (토론토) .....	29
15. 온타리오 주의사당 (토론토) .....	30
16. 하버프론트 (토론토) .....	30
17. 토론토대학 (토론토) .....	31
18. 조지브라운 칼리지 (토론토) .....	31
19. 캐나다 국회의사당 (오타와) .....	32
20. 캐나다 총독 관저 리도 홀 (오타와) .....	33
21. 성요셉 성당 (몬트리올) .....	34
22.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 (몬트리올) .....	34
23.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보스턴) .....	35
24.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 .....	36
25. 세인트 피터 아카데미 (보스턴) .....	37
26. 버겐카운티 의회 (뉴저지) .....	38
27.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	39
28. 유엔 본부 (뉴욕) .....	39
29. 타임 스퀘어 (뉴욕) .....	40

Ⅳ. 시사점 및 연수소감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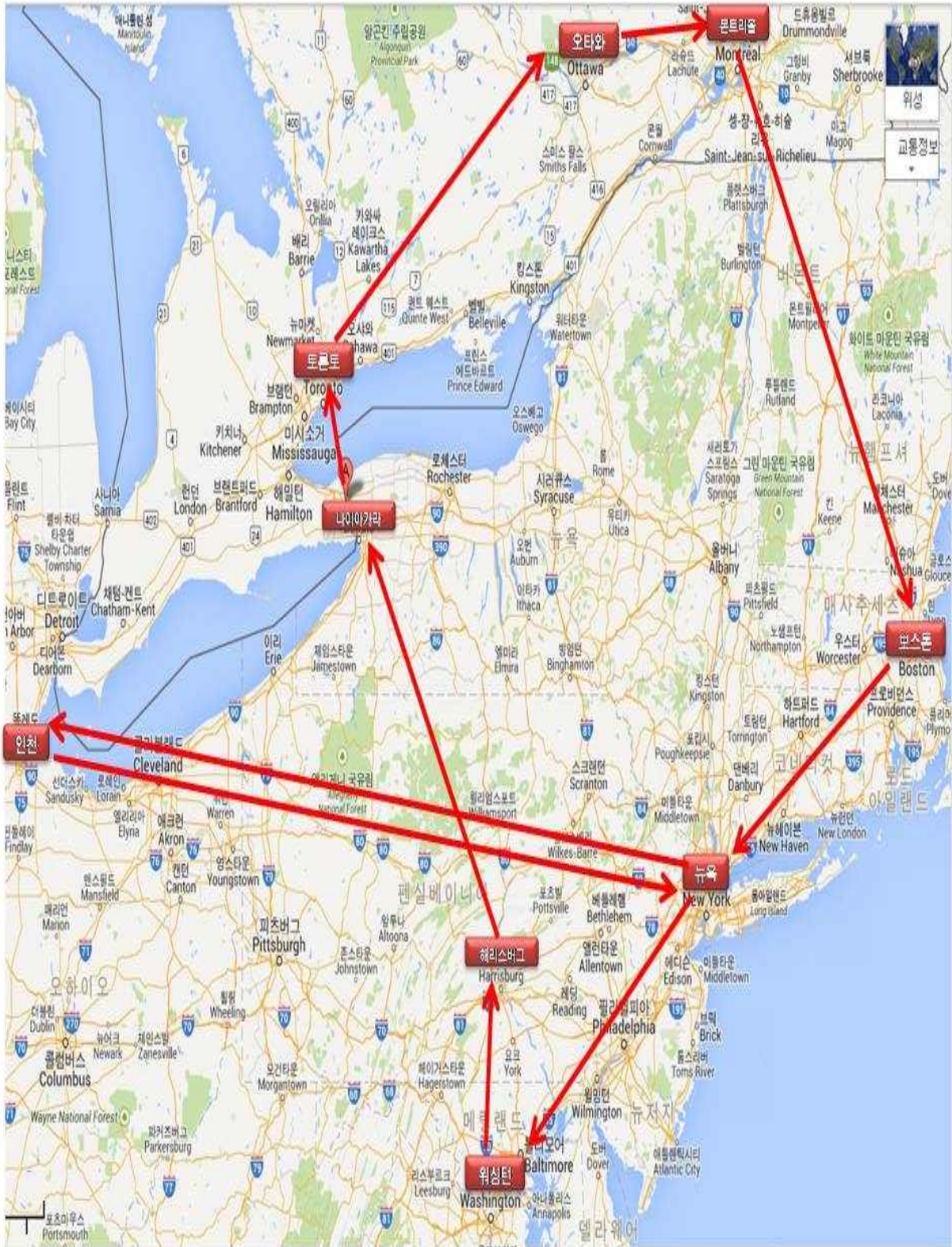
# I. 연수 일정

## 1. 세부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일차 4/1 수	인 천 뉴 욕	07:30	인천출발(약 14시간 소요) ----- 날짜변경선 통과	
		10:05	뉴욕 J.F.K국제공항 도착	
		11:20	입국 심사 후 가이드 미팅	
		13:00	중식	
		14:00	<b>그라운드 제로, 월가, 차이나타운, 자유의 여신상 탐방</b>	
		19:00	석식후 호텔 이동 및 휴식	
			호텔 : Holiday inn Somerset	
2일차 4/2 목	뉴 욕 워싱턴  해리스버그	07:00	조식	
		08:00	뉴욕출발/델라웨어, 메릴랜드주 경유하여	
		12:30	워싱턴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13:30	중식 후	
		17:00	<b>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 박물관 견학</b>	
		20:30	<b>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방문</b>	
			<b>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방문</b>	
			호텔 이동(약 2시간30분 소요) - 이동중 석식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Wyndham Harrisburg Hotel	
3일차 4/3 금	해리스버그  나이아가라	07:00	조식	
		08:00	호텔출발 / 나이아가라 이동 (약 5시간 소요)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 캐나다 사이드로 이동	
			<b>경유지역:염소섬(Goat Island), 세자매섬, 월폴, 수력발전소, 꽃시계 등</b>	
		18:00	석식 후 호텔 이동	
		19:00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Oaks Hotel (side-falls)	
4일차 4/4 토	나이아가라  토론토	07:00	조식	
		08:00	<b>나이아가라폭포 주변 관광, 씨닉터널 (엘리베이터 탑승)</b>	
		12:00	중식	
		13:00	토론토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14:30	<b>조지브라운 칼리지 캠퍼스 방문</b>	
			<b>토론토 구·신 시청사, 주의사당, 하버프론트 등 방문</b>	
		18:00	석식	
19:00	호텔 이동 후 휴식			
			호텔 : Holiday inn Toronto Airport Hotel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5일차 4/5 일	토론토	07:00	조식	
	오타와	08:30	호텔 출발/ 오타와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몬트리올	12:00	중식	
		13:00	오타와 수변시설 탐방 - 리도운하, 오타와강, 대사관길, 캐나다 수상 관저 탐방	
		15:00	몬트리올 이동(약2시간소요)	
		17:00	시내 탐방(몽로알공원, 노틀담 광장, 성요셉 성당)	
		18:00	석식	
		19:00	호텔 이동 후 휴식	
			호텔 : Quality inn dorval Hotel	
6일차 4/6 월	몬트리올	07:00	조식 후	
		09:00	몬트리올 출발/ 미국 국경을 통과하여 보스턴 이동 (약 6시간 소요)	
	보스턴	18:00	석식	
		19:00	호텔 이동 후 휴식	
			호텔 : Radisson Hotel	
7일차 4/7 화	보스턴	07:00	조식	
		08:00	보스턴 시내 탐방	
		보스턴 커먼,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퀸시마켓 등		
10:00		하버드대 방문		
		11:00	보스턴 St. Peter Academy 어린이집 방문	
뉴 욕	12:00	중식		
	13:00	보스턴 출발 / 뉴욕이동 (약 4시간 소요)		
	18:00	석식		
		19:00	호텔 이동 후 휴식	
			호텔 : Clinton Inn	
8일차 4/8 수	뉴 욕	07:00	조식	
		09:30	뉴저지 버겐카운티 의회 방문	
11:00		뉴욕 시내 탐방 (엠펙이어빌딩 전망대, UN본부, 센트럴파크, 타임스퀘어 등)		
18:00		석식		
		19:00	호텔 이동 후 휴식	
			호텔 : Clinton Inn	
9일차 4/9 목	뉴 욕	07:00	조식	
		09:30	호텔출발 / 공항이동	
		14:00	뉴욕 출발 ----- 날짜변경선 통과	
			기내 취침	
10일차 4/10 금	인 천	17:2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2. 여행 노선도



(출처 : 구글 지도)

## II. 방문국 개요

### □ 미 국

#### ○ 일반 현황

미국(美國), 정식 명칭으로 미합중국(美合衆國, 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태평양의 하와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북아메리카에 있으며, 북측으로는 캐나다와 남측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다. 북아메리카 북서 측에 있는 알래스카 주는 동측으로는 캐나다와 서측으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한다. 이 미합중국은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해외 영토를 보유한다.

세계 여러나라 중에 미국은 총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이고 국토 면적으로만 네 번째로 넓은 국가이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이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들어온다. 미국의 경제는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6조 7천억 달러로, 세계1위 최대 경제 규모이다.

아시아 대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늘날 미국 본토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으나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화 이후 전쟁과 질병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은 대서양 해안을 따라 늘어선 13개 식민지에서 건국되었다. 13개 주 국가는 1775년 5월에 식민 본국인 영국과 전쟁을 벌였고(미국 독립 전쟁), 1776년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 국가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1783년까지 전쟁을 벌인 미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오늘날의 미합중국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듬해에 비준되어 이 주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둔 단일 공화국이 되었다. 1791년에 비준된 미국 권리장전은 10개의 수정 헌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기본적인 민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9세기에 미국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고, 텍사스 공화국과 하와이 공화국을 병합하였다. 이 외에도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서 영토를 획득하였다. 농업 중심의 미국 남부와 산업화된 미국 북부 간에 주의 권리와 노예제 확대 문제를 놓고 갈등하면서 1860년대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북부가 승리하면서 영구적인 국가 분열 사태를 막았으며, 미국에서 노

예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1870년대에 미국 경제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미국-스페인 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군사 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냉전이 종결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다. 대학 졸업자 초봉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3,000 달러로 독일과 함께 G7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다.

## ○ 정 치

미합중국은 1776년 성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이다. 미국은 "법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최상위 법전인 헌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통제된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구성 주에서 위임받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안녕, 교도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은 구역별로 시민의 다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연방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없으며, 하위 정부 단위에서도 이 제도는 드물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 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독립국에 가까운 주(州)제도를 채용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구성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50개주는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각부는 연

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각 주의 행정 수반은 주지사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미국은 50개주에 포함되지 않는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의 속령 등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합동 참모총장을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미 해군에서 관할한다.

## ○ 경 제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민주주의적 혼합 경제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높은 생산성을 누리고 있다. 미국이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것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국내 산업이나 해외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6조 7천억 달러로, 시장 환율로 세계총생산(GWP)의 23%, 구매력 평가(PPP) 대비 세계총생산의 약 21%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의 GDP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1인당 명목 GDP 17위,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9위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재화 수입국이며, 수출 규모는 세계 1위인데 1인당 수입액은 비교적 낮다.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 있다. 2007년, 자동차는 주요 수출입 품목이었다. 중국은 미국 공공 채무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채권국이다. 약 6년간 성장하던 미국 경제는 2007년 12월부터 침체기를 맞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서 2위에 등재되었다.

2009년 미국 경제에서 개인 부문은 전체 중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방 정부 활동은 24.1%, 주 및 지역 정부 활동(연방 이전액 포함)은 20.6%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는 탈산업화 단계로, 서비스 부문이 GDP의 67.8%를 차지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산업 강국이다. 기업 총수령액 기준 주요 사업 분야는

도소매 무역이며, 순수입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주된 분야이다. 화학 공학 제품은 주요 제조업 분야이다. 미국은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이며,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기 및 핵 에너지를 비롯하여 액화 천연 가스, 황, 인지질, 소금 생산에서 세계 1위이다. 농업은 미국 GDP의 1%를 넘지 않으나, 미국은 옥수수와 콩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

2009년 3/4분기에 미국 노동 인구는 1억 5,440만 명이였다. 이 중 고용 인구의 81%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2,240만 명을 거느린 미국 정부는 주요 고용처이다. 미국 노동자의 노동 조합 조직률은 12% 정도로, 서유럽의 3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세계 은행은 미국을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가 가장 쉬운 나라 1위로 들었다. 1973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199시간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도 있어서, 미국은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에 미국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 면에서 십년 전까지만해도 미국보다 높던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따라 잡았다. 유럽과 견주어 미국의 자산 및 법인 소득세율은 보통 높은 편이며, 노동 특히 소비세율은 낮다. 미국은 내수경제가 튼실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내수 위주로 산업기반을 바꾸기도 했다. 세계최대 석유 비축량에 셰일 가스까지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공산품을 많이 생산하며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계층이 적고 엘리트 계층이 술선수범하여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영토는 넓고 자원은 풍부하며 새로운 인력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된다.

## ○ 문 화

아메리카 대륙에 신세계를 구축한 개척자들은 엄격한 청교도이며 그 금욕사상은 모든 경쟁이나 즐거움을 죄악시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활동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영국에서 도입된 예술·스포츠 문화가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개척민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빠르게 미국사회에 동화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 다방면에서 미국적인 사고와 양식이 표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대중음악과 영화를 들 수 있다.

## ○ 교 육

미국의 교육은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중요시되어왔는데,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은 전쟁과 과학 연구 등에 있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육에 있어 종교의 영향은 매우 크며, 엘리트들의 국가 경영이 장려되는 사회여서, 사학이 발달했다. 크게 사립과 주립 혹은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6세에서 16세까지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중등교육을 마치는 17, 18세 (K-12 학제 상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학교에 다닌다. 부자들은 대체로 사립 학교에 다닌다. 실용적인 교육 철학은 교육의 마지막 기간인 대학교와 대학원의 우수성에서 알 수 있는데, 특히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은 그 명성과 학열, 학생 수준, 그리고 연구 실적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을 압도한다.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ACT(주로 중부 쪽 대학)나 SAT(주로 동부, 서부 쪽 대학)를 치러야 한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미국도 중등 교육 단계부터 학점제를 채택한다. 교육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어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학문, 연구, 스포츠,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명문대학교로는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하는 아이비리그와 공립 대학교(퍼블릭 아이비)인 UC 버클리, UCLA, 버지니아,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사립 대학교인 스탠퍼드, 시카고, 워싱턴 세인트루이스와 MIT가, 미국 남부의 대표적 사립 대학교인 듀크, 밴더빌트, 라이스와 에모리 대학교 등이 있다.

## ○ 도 시

20세기까지 세계의 경제, 문화를 주도했던 미국 북동부 지역의 뉴욕과 보스턴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밀집되고 고층건물이 많은 메갈로폴리스를 구성하며, 근교에는 많은 산업도시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뉴욕은 세계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일찍이 발전했으며, 보스턴 또한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다. 내륙으로는 미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건국 초기 중심지이었던 필라델

피아와 철강도시 피츠버그가 위치해있다. 이들 내륙 지역은 러스트 벨트에 속해, 근래 미국 제조업의 쇠락으로 불경기의 진원지에 서 있다.

미국의 오락,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라스베이거스. 뛰어난 지리적 조건과 기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세기부터 급격히 발전한 캘리포니아 주는 최남단에 샌디에이고가,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해있으며 내륙으로 리버사이드와 새크라멘토와 같은 대도시가 있다. 이들 도시는 연중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를 바탕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현재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자가 백인과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영화와 연예, 오락산업이 특히 발달해 세계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뉴욕에 이어 인구가 가장 많다. 샌디에이고는 군수산업과 해양과학이 특화된 과학도시이며, 샌프란시스코는 새너제이(San Jose)와 이어져 실리콘밸리를 이뤄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도시이다. 내륙 지역과 분지/계곡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는데, 집산지인 베이커즈필드를 중심으로 광대한 과수원과 쌀 농장이 위치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워싱턴 주의 시애틀,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콜로라도 주의 덴버,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등이 위치한다. 시애틀은 항공산업과 선박업이, 라스베이거스는 오락과 관광업이, 포틀랜드는 임업이, 덴버는 로키 산맥 지방의 교통과 상업 중심지이자 요양지이다.

이들 지역은 선 벨트에 속하며, 인종이 매우 다양하고 그 분포가 고르다.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는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 중서부 지역은 오대호를 중심으로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밀워키, 버펄로 등의 대도시가 위치해있으며, 시카고는 상업과 금융업을 바탕으로 미국 제 2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쇠퇴하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하다. 이들 지역의 기후는 대체로 추위 스노벨트에 속하며, 20세기 후반에 들어 침체된 경제를 일컬어 러스트 벨트라고 불린다. 오대호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한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중공업과 과학이 매우 발달했다. 서쪽으로는 그레인 벨트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곡물 지대가 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은 애틀란타, 뉴올리언스, 내슈빌, 샬럿, 버밍햄 등의 대도시가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늦은 지역이다. 최근 따뜻한 기후와 낮은 물가를 바탕

으로 서남부 지역과 함께 선 벨트를 이루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애틀란타는 상공업이, 재즈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대표적 항구도시이며 석유산업이 발달했고, 내슈빌은 음악(종교/컨트리)과 출판업이, 샬럿은 금융업이, 버밍햄은 제철업이 발달했다. 이들 지역은 흑인의 인구비가 높아 블랙 벨트로 불리며, 과거 흥했던 농업이 쇠퇴해 20세기 중반까지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최근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 중이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는 휴스턴, 댈러스, 포트워스,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시티 등의 대도시가 있는데, 풍부한 자원과 멕시코와의 접근성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이다. 휴스턴은 우주산업이, 댈러스는 석유산업과 서비스업이, 샌안토니오는 교육과 군사시설이 많다.

플로리다 주는 남부에 속하고 아메리카 연합국에 가맹한 적도 있으나, 문화와 역사는 독립적인데, 히스패닉이 주류이고, 온화하고 강렬한 햇빛을 가져, 오렌지 등의 과수재배가 활발하고, 휴양지가 많다. 마이애미는 중남미와 미국을 잇는 거점 도시로, 항구도시이자 관광도시이다. 탬파 등의 산업 도시뿐만 아니라 해안가 전부가 관광도시로 이뤄져있다.

하와이 주는 섬 지역으로, 독특한 풍토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다. 군사적 요점이기도 한 하와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데, 광활한 토지에 다이아몬드와 석유를 포함한 각종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다. 매우 추운 날씨로 인구는 적으나, 광공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소득이 높다.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는 D.C를 중심으로한 정치와 첨단과학의 중심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소득이 높고, 군사와 행정기능이 발달했고 역사도 오래되었다. 여기에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볼티모어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광역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들을 광역권으로 포함시켜 인구를 측정한다.

## ○ 종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민 온 개신교 신자들 즉, 청교도들은 초기에는 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전통종교를 사교(邪敎)로 이해하여 배격했으며, 같은 기독교 종파들인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도 성공회 기도서 사용 금지, 성공회 신자 추방,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이민거부로 배척하였다.

하지만 건국 후에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다수의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미국의 특징상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를 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 온 이민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 1회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점차로 적어지고 있다. 개신교 신자가 다수이며 그 외 로마교, 유대교, 정교, 불교 및 기타 다양한 종교가 있다. 또한 유대교도도 많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유대교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도 미국인들은 매우 높아 신 또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94%에 달할만큼 종교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교회와 유대인을 공격했던 시기도 있었고, 존 F. 케네디 외에는 로마교회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같이 종교나 민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적지 않다.

## ○ 해방 이후 우리나라와의 관계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한국의 38도선 분단점령을 발표하고, 이어 맥아더(MacArthur,D.) 사령부가 미군에 의한 남한분할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9월 8일 하지(Hodge,R.) 중장 휘하의 미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3년간의 미군에 의한 남한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하지의 미군시정방침의 발표와 아놀드(Arnold,A.L.) 소장의 미군정장관 취임에 이어, 19일 '재조선(在朝鮮)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발족하여 남한의 통치에 들어간 미군정청은, 통치 초기부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임시정부의 부인, 신탁통치안의 고수, 미온적인 대공정책 등으로 우익 정치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이승만(李承晩)과 하지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반목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

라 하지는 김규식(金奎植)중심의 중간우파와 여운형(呂運亨) 중심의 중간좌파에 의한 좌우합작을 통해 난국에 처한 한국의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1947년경부터 시작된 미소의 냉전에 따라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버리고 한반도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기기로 정책을 전환하여 1947년 10월 국제연합에 '한국독립촉진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의 복안대로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0시를 기하여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미국은 제일 먼저 한국을 승인하고 초대 주한 미국대표로 무초(Mucho,J.J., 1949년 대사 승격)를 임명하고 한국에서도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張勉)을 임명함으로써 약 반세기 만에 양국의 공식외교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신생국가로서의 경제사정 등으로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펴,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 원조를 획득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사비를 삭감해야 할 국내사정 때문에 병력을 감축해야 하였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 1949년 6월 500여 명의 병력과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미군을 전면 철수하여, 이것이 6·25전쟁을 유발하는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한미관계가 정치·군사·경제면에서 보다 긴밀하게 전개된 것은 6·25전쟁 이후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미국대통령은 즉각 군대를 출동시키고 무기를 급송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결연한 방어의지를 보이고 38선의 획정을 백지화하여 UN군을 북진시켰다. 또한, 미국은 전시중의 군사·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경제원조를 강화하여 부흥사업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성향 때문에 부산 천도 시절부터 트루먼과 마찰을 빚었고, 아이젠하워(Eisenhower,D.D.) 대통령 때는 한국의 휴전협정반대 입장 때문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승만은 이를 군사·경제 원조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끌어 타결지었다. 1960년 케네디(Kennedy,J.F.) 대통령 때에는 한국의 5·16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미국이 민정복귀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한

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존슨(Johnson,L.B.)·닉슨(Nixon,R.M)·포드(Ford,G.R.) 대통령시대는 비교적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특히 1970년대 후반 카터(Carter,J.E.)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군철수문제·인권문제·박동선(朴東宣)사건 등으로 긴장된 관계가 또 한번 연출되었다.

레이건(Reagan,R.)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1983년 초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쉘츠가 “한미간에는 어려운 현안문제가 없다.”고 말한 대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뒤 1989년에는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의 방한과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의 클린턴(William Clinton) 대통령의 방한으로 두 나라의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꾸준히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를 도왔고, F-16기 등 최신예전투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왔으며, 매년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통하여 양국군의 실전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71년 이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왔다. 국교개설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존슨·포드·카터·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당면문제를 협의하였다.

광복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 강화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1961년 초까지 한국경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 현재까지도 무역·자본도입·합작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미국 국제개발처(AID)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 146억81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1960년대까지 제공한 무상원조 4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 한미간의 국제무역은 우리 나라 총무역 규모의 27%를 기록하였으며 46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미국의 국제무역 상대자로서 14번째에 속하며, 미국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농산품과 민간수요품·비행기·군대장비·공업기술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개인회사들의 대부와 주식이 9억5000

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과 더불어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1950~1980년 사이에 50억27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6·25전쟁 이후의 경제원조는 적금투자의 형식으로 바뀌어 초과지불의 짐을 덜어주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여주었다.

1959년 이후 상당액이 감소되었으며 1962년부터 현재까지는 쌍무적 무역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상원조시대의 한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적 타성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자립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62년 무상원조가 끊어지고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도움을 받는 경제에서 협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즉, 자금 대여 형식에서 투자형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적이었던 한국경제는 자립경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무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961년의 16.6%로부터 1968년 51.7%로 그 상승곡선의 정점에 달하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뒤 다변화 수출정책에 따라 1976년 32.3%로 하강하기 시작, 1980년대는 26%를 나타내었다.

1987년 미국의 대한 수출은 87억5821만 달러, 수입은 183억1079만 달러로 심한 무역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 현재 대한수출은 241억3148만 달러, 수입은 304억357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역조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의 통상마찰의 원인은 1990년대 이후 대한수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면서 차츰 해소되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의 한국인 이민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1885년 서재필(徐載弼)을 포함한 한국인의 이민이 처음 실시된 이래, 유학생 및 노동자의 이민이 행하여졌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일하기 위하여 121명이 도미하는 등, 1905년에 이르러 한국인 이민자가 7,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일제하에서는 이민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미국이민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65년 쿼터제의 개정으로 한국이민은 날로 증가하였고, 미국이민 중에서 멕시코·필리핀에 뒤이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교포가 아시아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이민은 수적으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이민국에 기록되어 있다.

1988년 한국의 재미교민은 101만5547명, 체류자는 7만3620명이었으나, 1995년 1월 현재는 재미교민이 166만1034명, 체류자는 14만65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뉴욕·시카고·호놀룰루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미국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779명의 선수단을 참가시켰다.

## □ 캐 나 다

### ○ 일반 현황

북아메리카 최북단의 연방 국가이며, 수도는 오타와이고, 최대도시는 토론토이다.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 북쪽에는 북극해가 접해있다.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크며, 미국과의 국경은 두 나라간 국경 중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다.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수 천 년 간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16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 탐험을 시작하였고 17세기 중반 캐나다의 대서양 해안에 정착하였다.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후 뉴프랑스를 영국에 양도하고 캐나다에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1867년, 영국령 캐나다가 연합하여 캐나다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영토의 증가가 가속화되었고, 지리적 영향과 이민국가로의 특성을 띄어 영국 본국과는 다른 정체성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적용을 받아 대영제국 내 자치령이 되어 행정적으로 본국과 분리되었으며, 1947년부터 캐나다 자치령에 거주하고 있는 대영제국 신민들은 캐나다국적을 사용하게 되었다. 사법권은 1949년 최고재판소가 런던의 추밀원에서 캐나다 대법원으로 옮겨짐으로 독립하였다. 1951년 12월 정식 국명을 캐나다자치령에서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캐나다는 정치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다. 국가원수는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엘리자베스2세는 16개국의 국왕이다)이며, 캐나다 총독은 엘리자베스2세의 대리인이다. 캐나

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G7, G8, G20, 북대서양 조약 기구, OECD, WTO, 영국 연방, 프랑코포니, 미주 기구, APEC, 개발 원조 위원회, UN의 회원국이다. 한편, 2012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조사에서는 캐나다가 호주다음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위로 선정되었다.

## ○ 정 치

연방 단위 행정은 연방 정부, 입법은 연방 의회, 사법은 연방 법원에서 처리하는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통치 체도로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연방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연방 하원 내 다수당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 차관급 미만 연방 공무원은 비정치적, 비선출직 공무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정치색을 띠지 않는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각 주에는 주 정부가 총리의 영도 아래에 연방정부 고유 권한인 외교권과 균통수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 영역을 관할한다. 주 단위에서도 삼권 분립이 이뤄져 사법부인 주 법원과 입법부인 주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 ○ 경 제

캐나다는 지리적 위치상 미국의 경제에 상당히 의존하는 편으로 미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이며 나라 면적이 세계 2위인 캐나다는 각 주마다 특성을 이용한 산업이 활발한 편으로, 각 주마다 주요 산업이 다르다. 특히 2007년 시점에서는 앨버타 주의 오일 샌드에서 원유가 채굴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매장량을 지닌 산유국이기도 하다.

주요 산업은 항공 산업, 우주 산업, 자동차 부품 제조, 제지, 철강, 기계·기기, 에너지 산업, 광업, 화석연료 채굴, 임산, 농업, 어업, 관광업, 영화 산업, 멀티미디어 산업, 하이테크 산업, 컴퓨터 산업, 소프트웨어 제작, 게임 제작, CG, 애니메이션이다.

임업과 그 관련 사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으며, 전 수출액의 3할 가까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펄프, 제지업은 생산액, 취업자수, 수출액

에 있어서 캐나다 최대의 산업이며, 신문 용지는 세계 수요의 1/2을 공급하고 있다.

수산업은 캐나다 최초의 산업이며, 새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연안에서는 청어, 정어리 등을 중심으로 35%를 차지하며, 오대호에서는 10%에 불과하다.

광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한 산업으로서, 특히 서드베리 부근의 니켈, 퀘벡 주 남부의 석면(石綿)은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 그 밖에 백금, 금, 우라늄, 은, 구리, 아연 등 세계 유수의 광산물 수출국이다. 또 수력 발전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발전 능력을 지니며, 보크사이트를 수입하여 정련하는 알루미늄 생산국이기도 하다. 금속 자원의 경우 우라늄(1만 톤,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29.2%), 염화 칼륨(820만 톤,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30.9%), 유황(903만 톤, 2위), 철광석(1980만 톤, 3위), 은(1309톤, 3위), 텅스텐(2750톤, 3위), 니켈(16만 톤, 3위), 아연(100만 톤, 4위), 코발트(4304톤, 5위), 염화 나트륨(1335만 톤, 5위), 납(15만 톤, 5위), 금(141톤, 7위), 안티몬(143톤, 8위), 구리(56만 톤, 8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인 등도 채굴되고 있다.

캐나다는 광물 자원을 타고나서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광물이 17종류가 있다. 유기 광물 자원은 천연가스(6565천조 줄, 3위), 연료가 되는 갈탄(3695만 톤, 9위)외에 석탄(2954만 톤)과 원유(9111만 톤)의 산출량을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산출량도 1120만 캐럿에 이르러 세계 제6위이다. 주로 보유한 천연자원으로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금, 은, 구리, 다이아몬드, 철광석, 니켈, 우라늄, 아연 등이 있다. 석유(오일샌드 포함)는 세계 2위의 부존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캐나다는 대량으로 원유를 수입한다. 중동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북해에서도 들어온다. 2006년 기준 하루 평균 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고 85만 배럴을 수입했다. 캐나다의 원유 조달 구조가 이처럼 기이한 것은 이 나라 원유 자원의 자연적 특징 때문이다. 원유는 보통 지하의 유정(油井)에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이 나라 원유는 오일샌드(oil sand) 형태로 부존하기 때문에 생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캐나다의 농업은 취업 인구의 3.4%(1999년)로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곡류, 감자 등의 농산물 중에서도, 평원의 3주에서 생산되는 경질(硬質) 밀은 단백질의 함유량도 많아 질이 좋으며, 생산량의 3분의 2를 수출하고 있다. 밀 총생산량은 25,261,400톤(2011년, 세계 7위, 3.59%)이다.

또한 낙농과 가축 사육도 왕성하다.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온실(green house) 농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 ○ 사 회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인 민족만 해도 34개 민족이 있다. 캐나다인의 다수(2001년 현재 86.9%)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민 온 유럽(잉글랜드 19.2%, 프랑스 15.7%, 스코틀랜드 14%, 아일랜드 12.9%, 독일 9.0%, 이탈리아 4.3%) 출신의 백인의 자손이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전체 인구의 9%이며, 온타리오 주 남부와 밴쿠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3.3%이다. 흑인은 전체 인구의 2.88%를 차지하는데, 서인도 제도에서 온 이민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를 쓰는 섬나라들에서 온 이민들은 주로 토론토 지역에, 프랑스어를 쓰는 아이티 이민들은 주로 몬트리올, 퀘벡 지역에 정착하였다.

1982년의 헌법은 캐나다의 원주민 세 집단을 인정한다. 이들은 인디언, 이누이트, 메이티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인디언(Indians)'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현재는 선주민을 의미하는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들 원주민은 2001년 인구 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3.3%인 976,305명이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62%가 퍼스트네이션, 30%가 메이티, 5%가 이누이트이다.

캐나다 인구는 캐나다 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33,143,610명으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 당 3.3명이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에 비해 인구수가 부족한데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차 은퇴를 함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캐나다 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5만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이주한다.

캐나다의 의료보험과 제반 사회보장제도, 우수한 교육제도, 비교적 안전한 치안,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자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등 많은 매력으로 인해 캐나다로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한 차별없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색깔을 유지하면

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라고도 불린다.

## ○ 문 화

과거에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현재 국제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와 영 연방 모두 정회원 소속이다. 여러 인종이 이민들과 함께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이다. 하지만 퀘벡 주가 분리 독립을 시도한 역사가 있어서 캐나다 연방 존속에 대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이다. 주요 아이스 하키 팀들은 켈거리 플래임즈, 몬트리올 캐내디언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밴쿠버 커넥스, 에드먼턴 오일러스 등이 있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1988년 켈거리 동계 올림픽,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 ○ 종교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7.1%가 기독교 신자라고 밝혔으며, 교파로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가장 많다(캐나다인의 43.6%). 캐나다인의 17%는 어느 종교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 나머지 6.3%는 힌두교, 시크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에 속했다. 그 외 캐나다 성공회, 캐나다 연합 교회(장로교, 감리교 등이 연합한 교단) 등도 존재한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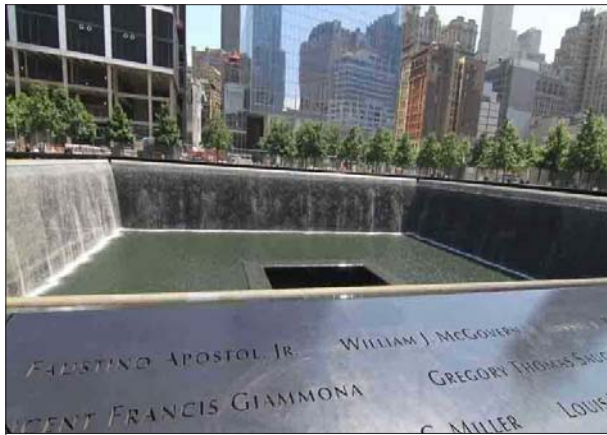
캐나다는 19세기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과 관련을 맺었으며, 6·25전쟁 때에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군으로 참전했다. 양국 간에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1963년 1월이며, 1964년 8월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이 설치되고 1974년 1월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그 후 1979년 2월 한국의 외무장관이 캐나다를 공식방문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캐나다 상원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으며, 1981년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방한함에 따라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이 캐나다를 공식방문 했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에 50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 III. 주요 방문지

#### 그라운드 제로 (뉴욕)

#### Ground Zero

뉴욕 맨해튼 남쪽의 약 6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9/11 테러 이전에 세계 무역 센터 건물이 있던 자리로 테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진 건축물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9/11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뉴욕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테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며, 남겨진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사회적 문제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그라운드 제로 >



< 뉴욕 빌딩 숲 >

#### 월스트리트 (뉴욕)

#### Wall Street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는 맨해튼을 위협하는 적군과 인디언들로부터 맨해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wall)에서 따온 것이다. 월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곳에서 있는 청동 황소 조각은 오랜 시간동안 월스트리트의 마스코트로 사랑받아 왔다. 황소의 코 부분은 몸통의 청동 색깔에 비해 유난히 밝은 색을 띠는데 그것은 이 황소의 코를 문지르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연방준비 은행, 증권거래소, 상공회의소 등 뉴욕경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건물들이 뉴욕의 마천루를 매우고 있다. 또한 뉴욕이 미국 최초의 수도가 된 후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한 곳으로 유명한 페더럴 홀도 이곳 월스트리트에 자리잡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미국 초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곳에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 월스트리트 >



< 청동 황소 조각 >



< 페더럴 홀 >



< 조지워싱턴 기념상 >

### 뉴욕 차이나타운 (뉴욕)

### China Town

로위 맨해튼의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은 중국 이민자들이 형성한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커널 스트리트(Canal Street)에서 시작되는 차이나타운의 상점들은 물건이 인도까지 나와 있어 물건을 보고 고르기가 편리하고 판매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시계, 지갑 등이 일반적이지만 남쪽 사이드의 일부 상점들은 음식, 약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중국산 물품을 판매한다. 이곳은 또한 차이나이즈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거리에는 온통 붉은색 간판으로 도배되어 있어 중국의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중국음식 및 다양한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며 어느 도시를 가나 차이나타운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인의 결집력과 외국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외국에서의 위상이 한 층 더 높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 순간이었다.



< 뉴욕 거리 >



< 차이나타운 >

자유의 여신상 (뉴욕)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백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기증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우호증진을 위한 선물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상징 더 나아가서는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리버티 아일랜드(Liberty Island)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게는 225t, 대좌(받침대) 높이가 약 47.5m, 동상 자체의 발끝에서 횃불까지의 높이가 46m이다. 지면에서 횃불까지의 높이는 93.5m에 이른다. 그리고 손만 해도 5m, 집게 손가락이 2.44m나 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자유의 상징으로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브록클린 다리에서 시작되어 맨하탄의 마천루를 거쳐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돌아오는 페리호의 여정이 뉴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브록클린 다리 >



< 뉴욕의 마천루 >



< 자유의 여신상 >



< 자유의 여신상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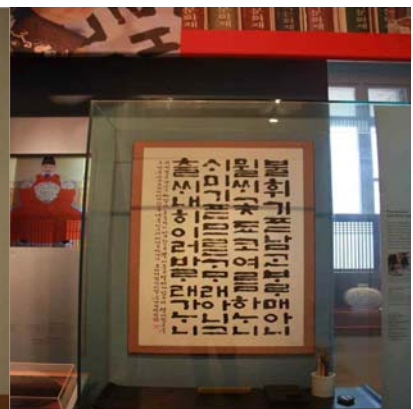
Smithsonian Institution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의 기부금으로 1846년 설립된 종합박물관이다. 그 자신은 미국에 온 일이 없으나, 1829년 사망 시 55만달러의 유산과 "인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시설을 워싱턴에 세우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총 16개의 박물관과 갤러리, 동물원, 리서치 센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에는 총 140 백만점의 수공예품과 견본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하게 큰 박물관 중에서 우리 방문단의 발을 멈추게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 전시관이다. 비록 크기 않은 공간에 마련되었지만 입구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글이 방문객을 맞아주고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도자기뿐만 아니라 의, 식, 주를 테마로 우리 선조들의 일상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랑거리 중에 극히 일부만이 전시되어 외국인이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국력을 키워 박물관 구석이 아닌 메인 전시관에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 보았다.



< 한국 전시관 >



< 한글 >

## 항공 우주 박물관 (워싱턴)

##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항공 우주 박물관은 시미소니언 박물관에 속해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우주 박물관이다. 내셔널 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연 100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한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스피리트 오브 세인트루이스 호'에서부터 아폴로 우주선과 월석, 화성의 무인 탐사기까지 전시되어 항공 우주 기술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비행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아이맥스극장, 태양계 밖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플라네타륨 등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박물관내 비행기와 우주선이 실제로 운행한 것이고 지금도 가동이 된다니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에 시작 단계이나 놀라운 IT 기술로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해 본다.



## 백악관 (워싱턴)

## The White House

펜실베이니아 거리와 뉴욕 거리가 교차되는 곳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200여년 동안 미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인의 상징물로 서 있다. 제임스 호번의 아일랜드풍 설계가 채택되었다. 1792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임기 때 착공하였으나 그는 이곳에서 살아보지 못했고,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관저의 첫 주인이 되었다. 그뒤 관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화하였고, 1814년 영국과의 전쟁 때 포화로 그을린 부분을 희게 칠한 데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록 관광객에게는 8개의 방만이 개방되어 있지만, 내부는 132실이나 되는 큰 규모이고, 검소하게 꾸며져 있다. 백악관 앞에는 미국 도로의 기준점이 되는 도로 원표(Zero Mile Stone)가 설치되어 있어 백악관을 찾은 관광객의 사진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백악관 >



< 제로 마일 스톤 >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

United States Capitol

국회의사당 건물은 내셔널 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의 하나로 의사당의 돔은 마치 건물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의 초석은 1793년 조지 워싱턴이 세웠다. 맞은편 좌측이 상원, 우측이 하원이 사용하고 있다. 정 중앙의 기둥은 높이는 약 77m이고, 그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이 서 있다. 그리고 기둥의 제일 아래 로돈다(Rotunda:돔아래 부분)의 벽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위인들과 콜롬부스의 신대륙 상륙, 독립선언 등의 미국 역사에 대해 그린 유화가 전시되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국회의사당 돔 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완벽한 의사당 건물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 국회의사당 >



< 워싱턴기념탑 >

## 링컨기념관 (워싱턴)

## Lincoln Memorial

링컨 기념관은 그리스 신전을 모티브로 링컨 대통령이 생존해 있었던 1867년 계획하여 1922년에 완공되었다. 총 36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둥에는 링컨 대통령 임기 중에 있던 36개의 미국 주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 그리고 기둥위로 보이는 위쪽은 1922년 완공을 기리며 미국 48개주의 이름이 새겨진 프리즈(조각을 한 소벽)로 꾸며져 있다. 계단 맨 위에는 높이가 19피트나 되는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기념관안 중앙의자에 앉아 있고, 동쪽과 서쪽 벽에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대한 링컨상은 다니엘 프렌치가 대리석 28덩어리로 4년의 세월을 들여 조각한 것이다. 링컨 동상은 워싱턴 기념탑과 의사당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벽으로는 두개의 커다란 벽화가 보인다.



&lt; 링컨 기념상 &gt;



&lt; 내셔널 몰 &gt;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워싱턴)

##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링컨 기념관을 등지고 좌측으로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우측으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한국전쟁 참전의 뜻을 길이 되새기고자 워싱턴의 내셔널 몰 서쪽 웨스트포토맥 공원 링컨 기념과 뒤쪽에 세워진 조형물이다. 1995년 7월 27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이루어진 기념물은 성조기, 벽화, 조상, 비명석판, 회고의 연못, 유엔 산책로 등 약 8,903m<sup>2</sup> 부지에 마련되었고 이 조형물의 핵심은 군인상과 벽화로 V자형으로 늘어선 실물 크기보다 약간 큰 19명의 군인상은 육군, 해군, 해병, 공군으로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이란 꼭 들른다는 이곳에 와보니 6.25의 아픈 역사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을 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



< 한국전쟁 참전용사 군인상 >

###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 Jefferson Memorial

제퍼슨 기념관은 지붕이 이오니아식 돔 구조로 된 원형 건축물로 신고전 낭만주의 양식의 표본이다. 워싱턴을 대표하는 유명 건축물 중의 하나로 국립미술관을 만든 건축가인 존 러셀 포프(John Russell Pope)가 만들었다. 미국 국립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때 착공해 1943년에 완공되었다. 건물 안에는 대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제퍼슨의 동상이 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였고, 정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독립선언서의 만든 주요 집필진 중의 한사람이었다. 이 기념관은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200주년 탄생일을 기념하여 세운 건물이다.



< 제퍼슨 기념관 >



< 제퍼슨 기념상 >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 캐나다)**

**Niagara Falls**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관광지중 하나로 캐나다와 미국북동부의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 쪽의 폭포는 높이 54m, 폭 610m 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두 폭포의 사이에는 고트섬(Goat Island)이 있다. 컬러풀한 조명으로 야간에도 아름다운 나이아가라폭포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나이아가라폭포 발생의 기원은 빙하기 이후 나이아가라 폭포 절벽의 하류 11km 지점에 있었던 폭포가 연간 약 30cm 씩 침식해 현재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씨닉터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나이아가라폭포의 웅장함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 나이아가라 폭포 >



< 나이아가라 폭포 >

**토론토 구시청사 (토론토)**

**Toronto Old City Hall**

토론토 구시청은 1999년 9월로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곳으로 신시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카사로마와 킹 에드워드 호텔 등을 만든 건축가 에트워드 제임스 레녹스가 디자인한 건물로 10여년의 기간 동안 총 2백5십만 달러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완성하였다. 구시청 건물이 완성된 1899년에는 토론토 시내 전체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것은 물론 북미에서 가장 큰 시정(市政)건물이었다. 1965년 베이 스트리트 맞은편에 신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벽면에 새겨진 썸그린 얼굴들은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 킹 에드워드 레녹스가 건물을 짓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정치가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토론토 구시청사와 신시청사를 방문한 4월 4일은 '2015 세계 베개싸움(Pillow Fight)의 날'로 토론토 시청 광장에서 펼쳐졌다. 흰 베개를 들고 나와 수 천명이 싸움을 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 구시청사에서 베개싸움 참가자와 함께 >



< 토론토 베개싸움 >

토론토 신시청사 (토론토)

Toronto New City Hall

토론토 신시청은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99미터 높이의 이스트 타워와 20층, 79미터 높이의 웨스트 타워, 이렇게 두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두개 빌딩의 생김새는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신시청 중앙에는 의회 회의장(Council Chamber)이 균형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건물 내부에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건물 밖 작은 호수 주변은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겨울에 호수가 얼면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며 신시청사 내에 있는 눈 조형물은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신시청 건물은 1965년 전 세계 42개국 520여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이다.



< 신시청사 >



< 신시청사 눈 조형물 >

온타리오 주의사당 (토론토)

The Ontario Parliament Building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는 온타리오주에 속해 있으며 1892년 퀸즈파크 한 가운데에 세워진 온타리오 주의사당은 갈색의 고풍스러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안에는 에드워드 7세, 빅토리아 여왕 등의 사진이 걸려 있고 온타리오 의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초상화도 걸려 있다. 또한 영국의 황금시대를 연 빅토리아 여왕, 캐나다 초대총리 존 맥도날드 등 유명인물의 동상이 건물을 호위하듯 애워 싸고 있다. 이 건물은 1909년 화재로 인해 건물의 일부를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은 곳의 바닥은 목조가 아닌 대리석으로 지어져있고, 대리석의 기둥에서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온타리오 주의사당 >



< 초대 총리 존 맥도날드 동상 >

하버프론트 (토론토)

Harbourfront

온타리오 호반을 재개발한 지역으로 항구의 모습과 최신 패션 부티크, 레스토랑, 앤틱 마켓이 어우러져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에 의해 레크레이션, 문화 단지로 조성된 하버프론트는 일년 내내 노천시장, 축제 등이 열린다.



< 하버프론트 >



< 하버프론트 >

**토론토 대학 (토론토)**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있는 연구 중심 공립 대학이다. 토론토 대학교는 다운타운 세인트 조지(St. George) 캠퍼스를 중심으로 총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캐나다 최대 규모이자 북미에서 하버드와 예일 다음으로 세번째로 많은 천 이백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44개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827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대학은 문학 평론과 통신이론 분야에 한 획을 그은 토론토 학파(Toronto School)로 유명하다. 인슐린과 줄기세포 연구, 최초의 실용 전자 현미경, 멀티터치 기술 및 NP-완전 개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는 10명의 노벨상 수상자, 캐나다 총리 4명, 캐나다 총독 2명, 해외 국가원수 4명 및 대법원 대법관 14명을 배출했다. 매해 캐나다에서 제일 기부금을 많이 받는 대학이기도 하다.



< 토론토대학 >



< 토론토대학 건물 >

**조지브라운 칼리지 (토론토)**

**George Brown College**

조지브라운 칼리지는 강서구 내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유사한 대학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학생과 고용주, 업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대적인 학습 환경, 최첨단 기술, 현장 교육 기회와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개발하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관행을 연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 학생수

- 25,888 Full-time      • 3,279 Part-time      • 3,553 International (유학생)
- 62,840 Continuing Education Registrants (평생교육 프로그램)

\* Programs Offered (과정)

- 142 Full-Time Programs
- 31 Advanced Diploma
- 27 Certificate
- 6 Degree
- 193 Continuing Education Certificates/Designations
- 35 Diploma
- 28 Graduate Certificate
- 10 Apprentice
- 5 Pre-college



< 조지브라운 칼리지 >



< 조지브라운 칼리지 전경 >

캐나다 국회의사당 (오타와)

Parliament of Canada

오타와의 상징이자 캐나다를 상징하는 제1의 장소다.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1919~1927년에 지어졌으며 오타와 강을 굽어보는 석회암 절벽 위에 청동 지붕을 얹은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당은 이스트와 웨스트 센터의 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블록 중앙에는 높이 89.5m의 평화의 탑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캐나다 병사 6만 명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탑에는 53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연주악기 가리용과 거대한 종이 달려 있다. 또한 탑 내부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기관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오타와 시 팔러먼트 힐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의회는 크게 총독이라는 캐나다의 군주를 대변하는 부왕,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체는 별도의 임원과 조직이 있다. 구조상 양원제를 표방한다.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따라 상원의원 105명을 임명한다. 308명으로 이루어진 하원의원들은 캐나다 시민들이 각각 거주한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



< 국회의사당 >



< 캐나다 자치 100주년 기념 성화 >

캐나다 총독 관저 리도 홀 (오타와)

Rideau Hall

총독 관저인 리도 홀은 0.36km<sup>2</sup>의 땅에서 본관은 9,500m<sup>2</sup>의 공간에 약 175개의 방이 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네덜란드의 왕궁처럼 보통 여러나라의 관저는 수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캐나다의 리도 홀은 반대로 오타와 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일종의 개인용 주택의 특징이 나타난다. 리도 홀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국정을 수행하는 용도로 쓰이며 작은 500m<sup>2</sup>의 공간만 총독이 필요한 거주 용도로 쓰인다. 리도 홀은 멋진 나무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 잊지 않고 하는 행사가 기념식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하였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한 것을 보니 마음이 몽클한 기분이 들었다.



< 리도 홀 >



< 에스키모 이정표 - 리눅스 >

**성요셉 성당 (몬트리올)**

**Saint Joseph's Oratory**

성요셉 성당은 몽로얄(Mount Royal)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당 중에 하나이다. 돔의 높이가 97m에 이르는데 이 크기는 로마에 있는 성피터 성당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10,000여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있는 교회당과 성가 예배당, 성당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Brother Andre를 포함해 수많은 순례자들의 유골이 전시되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해지게 한다. 성요셉 성당은 1904년 Brother Andre가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닌 1,000여명을 수용할 정도의 예배당이었지만 1924년 또 다른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67년에 완공하였다.



< 성요셉 성당 >



< 예 배 당 >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 (몬트리올)**

**Montreal Olympic Stadium**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회 하계 올림픽의 주 경기장으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레슬링 양정모)가 탄생하였고 또한 대한민국 국적 최초의 여성 메달리스트(여자 배구 대표팀)가 탄생하였다. 주 경기장 옆에는 자전거 경기장 겸 유도 경기장이 있는데 올림픽 개최 후 사용이 불가능하여 골칫거리인 이 경기장을 1989년 리모델링하여 1992년 실내 생태계 전시관인 바이오 돔으로 개장하였다. 현재 자연보호와 복구를 위한 연구소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몬트리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딴 올림픽 주 경기장과 올림픽 이후 쓸모없는 경기장을 관광 명소로 만든 점에 대해서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올림픽 스타디움 >



< 올림픽 스타디움 >



< 양정모 선수 금메달 동판 >



< 바이오 돔 >

###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보스톤)

### Massachusetts State House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Massachusetts State House)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의 주 정부 사무실 및 의회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도인 보스톤 시내 중심인 비컨 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금색의 돔 뚜껑이 인상적인 건물로 의사당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 도심에서 가족 단위로 나와 뛰어 노는게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보스톤 중심부의 도로에 그려져 있는 붉은 선인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은 보스톤 커먼에서 찰스 타운의 USS 컨스티튜션까지 길이 약 4km에 걸쳐 있어, 걸어가며 시내 주요 관광지 17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광코스이다.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은 퀸시마켓과 함께 프리덤 트레일의 주요 관광코스 중 하나로 꼭 둘러보아야 할 관광 명소이다.



<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



< 퀸시마켓 >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사립대학교로 오랜 역사와 큰 영향력 있는 세계의 일류 대학 중 하나이다. 1636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의회가 설립하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현재까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 8명의 미국 대통령, 69명의 노벨상 수상자, 36명의 풀리처상 수상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21명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과 7명의 세계은행 총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62명의 억만장자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335명의 로스 장학생이 하버드를 졸업했다. 세계 각국에 포진한 하버드 유학과들로 인해 하버드 출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 졸업식이 열리는 캠퍼스 >



< 하버드 캠퍼스 >

세인트 피터 아카데미 (보스턴)

St. Peter Academy

St. Peter Academy는 보스턴 지역의 대표적인 사립 보육/교육시설로 어린이집에서부터 중학교(8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한 반에 20명을 넘기지 않는 엄격한 제도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게 하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 \* 유아 교실 : 문자 인식, 수학, 사회, 과학, 기술, 공학 등의 기초적 인식교육과 인성 교육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과정 : 공통 핵심 교과 과정,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컴퓨터 기반 기술
- \* 심화 학습 : 음악 예술 수업, 영양 및 피트니스 클래스, 기술, 연설, 걸스카우트, 학술 및 문화 견학, 세계 언어 (스페인어) 등



< 세인트 피터 아카데미 >



< 원장님과 함께 >



< 간담회 >



< 수업 광경 >

**버겐카운티 의회 (뉴저지)**

**Bergen County Council**

뉴저지는 면적이 19,210km<sup>2</sup>에 89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리 크지 않은 주이다.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주가 미 50개 주 가운데서 가구당 소득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한다. 바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맨하탄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최고로 비싸 맨하탄에서 근무를 하는 엘리트들은 맨하탄에서 떨어져 나와 널찍한 집을 사서 자녀들을 키우길 원하고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뉴저지의 버겐카운티이다. 뉴저지의 150여 곳의 타운과 군소 시 중에서 버겐카운티는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플러싱 다음으로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인근 워싱턴과 커네티컷, 메인,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슬베니아, 매사추세츠 주의 유명한 대학 진학이 유리하고 케네디, 라파디아, 뉴왁 국제공항이 있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지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뉴저지에 10만334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며 이중 버겐카운티에 5만6,773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버겐카운티 플라자 >



< 버겐카운티장과 함께 >



< 의장 · 부의장과 함께 >



< 의회 간담회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Empire State Building**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지상 102층에 높이는 381m이며 1953년에 설치된 안테나 탑을 포함할 경우 443m이다. 86층의 콘크리트건물 위의 16층짜리 철탑은 본래 비행선의 계류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바람이 심해 비행선 정박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망대와 방송용 안테나만이 위치해 있다. 또한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안테나 탑에서 벌이는 장면으로도 유명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20세기 초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집중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상징이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

**유엔 본부 (뉴욕)**

**United Nations Headquarters**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1945년 창설된 유엔의 공식 본부로 현재 200여 세계 각국 정부 대표단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스트 강을 바라보는 맨해튼의 터틀만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유엔은 3개의 부가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있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본부 건물만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유엔의 주요 기관을 갖추고 있다. 모든 15개의 전문 기구들은 뉴욕의 외부와 다른 도시들에 본부를 두었다. 유엔 본부 건물은 당시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윌리엄 제켄도프로부터 69,000m<sup>2</sup>의 땅을 사들여 이스트 강 옆에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건설되었다.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지도자로 역할하며 사실상 유엔을 대표하는 대변인에 해당한다. 현재의 사무총장은 2007년에 취임한 대한민국의 반기문이다. 유엔 헌장 상 사무총장은 5년 기한을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2011년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5년 더 연장되었다. 이렇듯 세계를 이끌어 가는 유엔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 유엔 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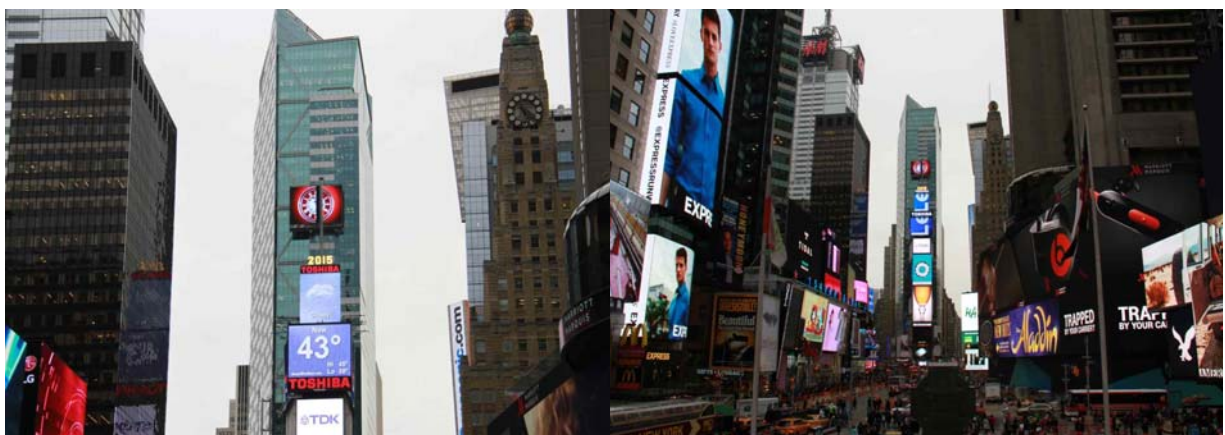


< 역대 유엔 사무총장 >

타임 스퀘어 (뉴욕)

Time Square

타임 스퀘어는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상업적 교차로로, 웨스트 42번가와 웨스트 47번가가 합쳐져 만난 세븐스 에비뉴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일대를 말한다. 타임 스퀘어는 브로드웨이의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용 교차로 중 한 곳이다. 또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소 중 하나로 매년 3,9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또한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맞이 행사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명소로 2013년 새해에는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싸이가 공연하여 우리에게도 친숙한 장소이기도 하다.



< 타임 스퀘어 >

< 타임 스퀘어 >

## IV. 시사점 및 연수소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의 정치제도와 기능,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보아오던 정치적으로 유서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로 다양한 유색인종이 사는 국가답게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이다.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 시민은 보통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 주, 지역 단위에 속해 있게 된다. 국방·외교 정책·대외 무역의 조정 기능, 통화, 최고 법 집행기능, 주간 통상의 조정, 이민 등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권에 속한다. 주 정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 농업, 자연보호, 고속도로 관리, 차량 감독, 공공 안녕, 교도 행정, 주내 통상의 조정, 교육·보건·복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지역 정부의 업무는 보통 각 군과 시 정부에 나눠 맡기고 있다.

캐나다는 형식적으로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각 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국가의 수장은 상징적으로 영국의 국왕이며 형식상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총독은 국왕의 개인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 1952년 이후로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총독의 지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하다. 연방 단위 행정은 연방 정부, 입법은 연방 의회, 사법은 연방 법원에서 처리하는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통치 제도로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연방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연방 하원 내 다수당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국가인 미국과 형식적으로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제지만 실질적으로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정치적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주의사당, 시청사, 총독 관저 및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정치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뉴저지 주의 버겐카운티를 방문하여 시장 및 의장·

부의장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단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의장과 부의장 집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이곳 저곳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소탈하고 가정적인 면을 많이 엿볼 수 있었고 1시간 가까운 질의 시간에도 친절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시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시장이 직접 나와 서서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오랜 시간 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는 모습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정치인의 소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된 미국, 그리고 넓은 영토의 산림과 그곳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중 하나가 된 캐나다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타임스퀘어, 하버프론트 등을 방문하여 두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부러움 이면에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으로 하루 빨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원해 보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아이비리그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 캐나다 최고의 대학인 토론토 대학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육 시스템과 강서구 관내에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과 유사한 조지브라운 칼리지를 방문하여 산학협력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보스턴의 세인트 피터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원장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학년 교육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연관된 곳을 둘러보는 것은 색다른 재미와 함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의 한국전시관,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캐나다 총독 관저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식수,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 그리고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유엔 본부.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듯이 멀리 타국에서 우리나라와 연관된 곳을 둘러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가 볼 곳이 미국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하고 볼 것도 많아 미국을 여행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 그만큼 시시해서 그런 말이 나온 듯 싶다. 비록 미국·캐나다 해외 연수는 여기서 마치지만 연수에서 얻은 거대한 포부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이자 시작이 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위키백과, 브리태니커,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글, 네이버